

정형화된 운율보다는 엇박자의 흥미로움... 미술계 젊은 피들의 '일곱 색깔 각운'

신진작가 단체전 관람에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 작품마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고, 치열한 고민도 엿보인다. 무엇보다 실험성이 강하며 개 개인의 관심사에 대한 흥미, 오월의 신록 같은 미술계의 '새로운 피'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기울어진 각운들'은 국제갤러리(서울소격동)에서 열리고 있는 신진작가 7명의 작품전이다. 국제갤러리가 작가 발굴과 작업 장려를 위해 마련한 전시회로 독립큐레이터·비평가인 김현진씨가 전시 기획을 했다.

전시장에는 남화연·문영민·윤향로·이미연·정은영·차재민·홍영인 작가가 영상, 회화, 설치 등 20여 작품으로 저마다의 색깔을 내보인다.

윤향로의 영상작업 'W/H'는 인터넷에 파편화돼 떠돌아다니는 각종 이미지들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우리들의 숨겨진 속성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현대인의 성적 자극에 대한 탐



차재민의 'Fog and Smoke', 비디오, 20분.

닉, 은밀한 폭력성, 권태 등이 날것 그대로 보이는 것이다.

차재민의 작품은 도시의 이면을 환기시킨다. '포그 앤드 스모크(Fog and Smoke)'는 안개가 자욱한 송도 신도시와 신도시에서 발생한 매연에

협짜인 구도시의 풍경을 통해 도시와 그 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계급화되는지를 이야기한다. '트리오, 트로트, 왈츠(Trio, Trot, Waltz)'는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 그들의 발자국 같은 음향을 강조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여성주의적 미술 언어를 연구하는 정은영은 1950~1960년대 영광을 누렸으나 이젠 쇠퇴한 여성국극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이미연은 전시장의 기울어진 벽

면에 조난 현장의 구조장면 사진들을 자기 방식으로 재구성한 드로잉 80여 점을 매달리듯 붙여 기울어진 공간과 조응한다.

문영민은 6점의 절하는 남자 모습을 통해 미묘한 시선의 차이를, 남화연은 빛과 그림자 변화를 통한 조각적 설치작품을, 홍영인은 교회 부흥성회와 그래피티 이미지, 사슴과 공룡 같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물을 조합해 묘한 부조화를 내보인다.

각운은 정형화된 규칙인데, 작가들은 신진답게 '기울어진 각운'으로 새로운 운율을 더하고 있다.

김현진 큐레이터는 "올림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운율보다는 흥미로운 엇박의 각운을 드러내는 작가들을 언급하는 전시"라며 "새로운 움직임의 전조가 드러나는 전시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6월16일까지. (02)735-8449